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8. Vol. 37, No. 3, 382-395

Original Article
© 2018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9
eISSN 2733-453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Self-Evaluation Scale

Saebom Park Jongnam Kim†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Dysfunctional Self-Evaluation Scale (DSES). Dysfunctional self-evaluation was expected to influence on a distorted self-concept, thereby causing a psychological maladjustmen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were carried out on data administered to 233 an individual between the ages of 20 and 64 in study 1, resulting in three factors of 24 items. In sequence, EFA were carried out on data administered to 205 an individual between the ages of 20 and 64 in study 2, three factors of final 15 items were confirmed. The DSES was divided into three factors: posi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nega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and social comparison self-evalua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was conducted on the data of 205 an individual between the ages of 20 and 64 to test the stability and generaliz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in study 3, and confirmed the goodness-of-fit for three factors model. And factors showed appropriate levels of reliability estimates. In study 3, a criterion-related validity analysis confirmed Posi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was related to overt narcissism, while nega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was related to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mparison self-evaluation was related to covert narcissism, depression, and anxiety.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s well as implications for clinical use were discussed.

Keywords: dysfunctional self-evaluation scale, development of scale, validation, factor analysis

본 연구는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기평가(self-evaluation)란 '개인이 자신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행동, 능력 그리고 속성을 평정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과정'이다(Coopersmith, 1967).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모니터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기평가는 자기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Stopa, 2009). 삶의 다양한 순간마다 자신을 평가한 것들이 모여 자기개념에 영향을 주고(Vallacher, Nowak, Froehlich, & Rockloff, 2002), 이렇게 형성된 자기개념은 다시 자기평가의 방향과 목적에 영향을 미친다(Bosma & Kunnen, 2005). 따라서 자기평가는 자기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Correspondence to Jongnam Kim,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621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 E-mail: kimjn@swu.ac.kr

Received Feb 3, 2018; Revised May 6, 2018; Accepted Jun 5, 2018

This study is based on the master's thesis of first author. And por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at the 54th Korean conference on Health Psychology.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

지금까지 자기평가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자기평가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삶의 영역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 예를 들면, 자기평가 영역을 매력, 능력, 지능, 사회성, 도덕성과 같은 내용적 범주로 구분하였다(Cai, Brown, Deng, & Oakes, 2007). Burwell과 Shirk(2006)은 이전의 자기평가 연구는 내용 차원에 더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의 연구들은 내용 차원보다 과정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자기평가의 과정은 내용과 달리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평가의 과정은 내용보다 개인의 삶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Shirk, Burwell과 Harter(2003)의 연구에서 자기평가의 내용보다 그 과정이 심리적 부적응(예, 우울)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기평가의 과정은 내용적 범주보다 개인의 정신건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하여 깊이 있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자기평가 과정은 최근 그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Bosma와 Kunnen(2005) 또한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연구자들마다 자기

www.kci.go.kr

평가 과정에 대한 구성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하위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초점이 다르며 각기 다른 용어로 연구되어 전체적인 자기평가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Festinger(1954)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Jahoda(1958), Jourard와 Landsman(1980)은 현실을 정확하게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Jahoda, 1958: Jourard & Landsman, 1980: Taylor & Brown, 1988에서 재인용).

둘째, 자신을 실제보다 더 고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Colvin, Block과 Funder(1995)는 '과도한 긍정적 자기평가(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라고 하였고, Taylor와 Brown(1988) 그리고 Epstein(1992)은 '비현실적인 긍정적 자기평가(unrealistic positive self-evaluation)'라 하였고, Han(2003)은 '자기-고양 편파(self-enhancement bias)'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평가가 건강하게 기능한다면, 자기개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Taylor & Gollwitzer, 1995). 하지만 Lee와 Jang(2011)에 따르면 자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동기는 장기적으로 자존감에 위협을 주고 우울감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Campbell, Assanand와 Paula(2003)은 과도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허풍, 과도한 경쟁과 적개심 등 부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초래했고, 장기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부정적인 정보를 통해 자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있다. Epstein(1992)은 이를 '부정적 자기평가(negative self-evaluation)'라고 하였으며, '자기비판/자기비난(self-criticism)'의 용어로 연구되기도 하였다(Kim, 2009; Santor & Yazbek 2006). 이러한 자기평가를 통해 실수나 단점을 교정하여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Ham & Hyun, 2015), 성숙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Driscoll, 1989).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부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의 자신보다 비판적으로 자기를 평가한다면, 스트레스, 우울(Cho & Hyun, 2011), 열등감, 죄책감(Kim, 2009)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Diehl, Owen과 Youngblade(2004)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한다고 하였다. Festinger(1954)는 이를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한 그것을 근거로 자기평가를 한다(Leary & Tangney, 2011). 이러한 자기평가 방식이 적응적으로 기능할 경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으며(Stapel & Blanton, 2004),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며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등의 적응적 태도를 보였다(Chon, 2005).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평가한다면 우울과 불안이 초래된다(Fujita,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결과들을 종합해본 결과, 첫째, 자신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둘째, 자신을 고양적으로 평가하는 것, 셋째, 자신을 부정적으로 비판하여 평가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바라보는 평가가 있었다. 주목할 점은 각각의 자기평가의 과정이 적절한 수준이라면 개인의 성숙과 발전을 도모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반면 비현실적이며 편향되고 과도한 수준이라면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즉, 역기능적인 수준의 자기평가 과정은 왜곡된 자기개념을 형성하여 편향된 사고와 부정적인 정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기평가 과정의 역기능성에 따라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척도 개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자기평가 과정의 하위 구성개념을 파악하기 어렵고, 각 하위 구성개념들의 영향력에 대한 차이나 특성과 같이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체계적인 정리가 부족하다. 이는 자기평가의 과정과 그에 따른 자기개념과 정신건강을 큰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자기평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자기평가 과정들을 포괄하며,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기평가의 과정과 그 수준이 역기능적인지 파악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왜곡된 자기개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기평가가 과도하고 편향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개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자기평가의 과정의 수준이 비현실적이며 편향되고, 과도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수준의 자기평가 과정을 '역기능적 자기평가'라 명명하고 이를 측정할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발, 번안된 척도 중 이와 관련된 유사 척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척도들 중에는 경향성이나 성향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평가의 구성개념에 포함되기에 다소 무리가 있거나 역기능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척도는 자기평가 과정의 역기능적인 면에 주목하기 때문에 관련 척도들과 구별된다. 먼저, Han(2003)은 편향적인 자기고양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고양 편파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을 실제보다 그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성을 측정한다. 하지만 Han(2003)은 자기고양이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Ishiyama와 Munson(1993)이 개발하고 한국에서 Lee(2009)가 번

www.kci.go.kr

안하고 타당화한 자기-비판적 인지척도(Self-Critical Cognition Scale, SCCS)가 있다. 이 척도는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과잉 일반화하여 비난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의 경향성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Gibbons와 Buunk (1999)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Choi(2003)가 번안한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INCOM)가 있다. 이 척도는 타인과 비교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성향을 측정한다. 이 척도는 자기평가의 측면이 아닌 전반적인 비교에 대한 문항이며, 그 수준 또한 일반적인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리하면, 자기개념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평가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론적 큰 틀 안에서 선행연구의 다양한 구성개념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연구되었던 유사 개념들을 자기평가의 구성개념 안에 포함되도록 재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자기평가와 그 하위 요소들의 구성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특히 자기평가의 역기능성에 주목하여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척도들과 달리 본 척도를 통해 수검자자가 어떤 자기평가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그 수준이 역기능적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문항 제작

구인화와 예비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구인화가 이루어졌다.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자기평가의 과정이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성숙과 적응에 도움을 주었지만, 반대로 과도하고 편향된다면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역기능적 자기평가(dysfuntional self-evaluation)'에 대하여 정의하고자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자기평가를 '자신을 평가하는 과정이 편향되고,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수준의 자기평가'라 정의하였다. 이는 왜곡된 자기개념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역기능적 자기평가의 하위 요소의 구성개념은 국내외의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자기평가의 방식으로는 '자기-고양(self-enhancement)' 등으로 연구된 과도하게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따른 특성으로는 '긍정적인 정보에만 초점을 맞춤(Sedikides & Gregg, 2001)', '자신의 수행이나 그들 자체가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생각(John & Robins, 1994)' 등이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자기비판/자기비난(self-criticism)' 등으로 연구된 과도하게 부정적인 자기평가에는 '자신의 실제 능력과 성격 속성들보다 더 가치가 없게, 낮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평가(Go & Jeon, 2003)' 등의 특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로 연구된 과도한 사회비교를 통한 자기평가는 '타인과 자신의 능력, 태도를 비교(Festinger, 1954)', '타인을 평가절하(Kernis & Sun, 1994)' 등의 특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문가 면담으로는 상담심리전문가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소지자 3인에게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의 역기능적 자기평가 특성에 관해 묻는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대면으로 각 30–60분 소요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정리한 결과 과도한 긍정적인 자기평가에는 '시도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사고', '실패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금방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 '자신의 능력 없음을 피해버림' 등의 특징이 있었고, 과도하게 부정적인 자기평가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쉽게 떨쳐내지 못함', '실패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등의 특징이 있었다. 과도한 비교를 통한 자기평가에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검증하고 싶다는 생각', '남들 수준까지 노력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리된 역기능적 자기평가의 특징들을 반영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또한 관련 기존 척도를 검토하여 역기능적 수준이며 자기평가의 구성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문항을 추가 또는 수정하였다. 자기평가와 관련된 '자기고양 편파 척도(Han, 2003)', '자기-비판적 인지척도(Ishiyama & Munson, 1993; Lee, 2009)',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Choi, 2003; Gibbons & Buunk, 1999)'를 참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자기평가 22문항, 과도하게 부정적인 자기평가 20문항, 과도하게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통한 자기평가 17문항으로 총 59문항이 예비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문항 검토

1차 내용타당도 확인을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1인 및 상담 및 임상심리 전공 석사과정 6인에게 예비 문항 중에 하위요소별 구성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문항 10개씩 총 30문항을 선별하도록 요청하였다. 각 문항을 평가하였고, 1인의 선택을 1점으로 하여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높은 점수의 문항을 선택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내용적 검토에 의해 추가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에 따라 표현이 어색한 문항들이 수정되었다. 이 결과 역기능적 자기평가와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9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된 문항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장점들이 많다.', '나는 실패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를 시작할 때 자신이 없어서 머뭇거린다.', '나는 종종 누군가 나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지곤 한다.' 등으로 총 19개 문항이 제외되었다.

2차 내용타당도 검증은 임상심리전문가 2인에게 1차에서 선별된 40문항의 평정을 의뢰하였다. 구성개념이 잘 반영되었는지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약간 반영한다', 4점 '대체로 반영한다', 5점 '아주 잘 반영한다')로 평정하게 하였다. 실시 결과 40문항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안면타당도를 위해 성인 3명에게 문항의 표현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정리하면,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관련한 13문항, 과도하게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관련한 14문항, 그리고 과도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평가 13문항으로 총 40개를 예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1

방법

연구 1에서는 척도의 문항 선별과 요인구조 확인을 위해 만 20–64세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다. 연구 1에서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64세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예비조사 설문 총 250부를 배포하였고, 233부를 회수(회수율 93.2%)했다. 남성은 117명(50.2%), 여성은 116명(48.8%)이었으며, 만 20–29세는 49명(21.0%), 만 30–39세는 41명(17.6%), 만 40–49세는 49명(21.0%), 만 50–59세는 55명(23.6%), 만 60–64세는 39명(16.7%)이었다.

도구

역기능적 자기평가(the Dysfunctional Self-Evaluation Scale, DSES)

1차 예비 문항

예비문항 제작 단계에서 작성한 4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반응 양식은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2점 '별로 아니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5점 '항상 그렇다')이다.

자기고양 편파 척도

Han(2003)이 개발한 자기고양 편파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적일관성은 .87로 우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비문항의 검토를 위해 사용되었다. 성인에게 부적절한 2문항('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번 학기의 내 성적은 최상위권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본격적인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보다 앞서 나갈 자신이 있다.')을 제외하고, 총 8문항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수검자 반응의 편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항을 무선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 양식을 통일하였고,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2점 '별로 아니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5점 '항상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 분석 결과 .85로 적절하였다.

자기-비판적 인지척도(SCCS)

Ishiyama와 Munson(1993)에 의해 자기-비판적 인지척도가 개발되었고, 한국에서 Lee(2009)가 번안, 타당화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9로 우수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예비문항의 문항검토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문항 배치의 무선화를 위해서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2점 '별로 아니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5점 '항상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0으로 적절하였다.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INCOM)

Gibbons과 Buunk(1999)가 제작한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INCOM)를 Choi (2003)가 번안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hoi(2003)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은 .83으로 우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비문항의 문항검토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문항 배치의 무선화를 위해서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2점 '별로 아니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5점 '항상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결과 .72로 적절하였다.

자료분석

연구 1에서 예비 문항의 적절성과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 분석을 하였다. 첫째, 문항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문항-상관, 문항-관련척도 상관, 그리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가 검토되었다. 분석은 SPSS 21.0이 사용되었다. 둘째, 표본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KMO의 표준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요인수효의 대략적 결정을 위해 평행성 분석은 비가중최소제곱

www.kci.go.kr

법(ULS)를 사용하였고, 고유치검사 및 누적분산비율은 최소계수 요인추출법(MRFA)를 사용하였다. 이는 Factor 10.3이 사용되었다. 셋째, 요인수효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각회전(Oblique)방식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Mplus 7.4를 사용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SPSS 21.0이 사용되었다.

결 과

문항분석

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 간 상관, 문항-관련척도 상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이 2점 미만으로 변별력이 낮은 3문항('나에겐 단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나의 단점이나 한계, 실수들 때문에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이 제거되었다. 문항 간 상관이 .6 초과로 높아서 서로 유사한 문항이라고 판단된 5개 문항('결과는 좀 부진했지만 나에겐 더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고심해서 선택한 것이라도 남들의 말에 휘둘릴 때가 많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해 확신이 없다.', '나는 남들과 비교를 통해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나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위치를 가늠한다.')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Burisch(1984)의 예비문항 검토 방법에 따라 각 문항들과 관련 척도와의 상관 범위를 비교하였다(Burisch, 1984: Kim et al., 2017에서 재인용). 상관이 낮으면 수렴타당도가 없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7). 이를 통해 관련척도와 상관이 .4 미만으로 낮아 적절하지 않은 6개 문항('내가 잘하지 못했던 건 단순히 실수일 뿐이다.', '남들이 나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은 나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 없다.', '나는 언제나 잘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는다.', '남들이 나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은 나의 안 좋은 면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잘 풀린 일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운 덕분이다.', '나는 나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쉽게 따라 간다.')을 제거하였다. 또한 문항에 이론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척도와의 상관계수가 더 높은 2문항('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나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쉽게 바뀐다.', '나는 나의 기준보다 무엇이든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쓴다.')을 삭제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총 40문항 중 16문항이었다.

요인분석

KMO지수는 0.89, Bartlett 검정 결과 2,342.5, $p < .001$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자료가 적합하였다. 평행성 분석 결과, 3요인에서 무선 자료 고유치의 분산 7.5%가 실제 자료의 고유치 분산 5.6%보다 크기 때문에 2요인이 추천되었다. 고유치 검사 결과, 2요인 4.58에서 3요인 1.28로 갈때 3.29의 최대 감소가 있으므로 2요인이 추천되었다. 반면, 누적분산비율은 70% 이상인 8요인까지 추출하는 것이 추천되었다. 따라서 모든 결과를 종합하면, 2–8요인까지 검토가 가능하였다.

이어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2–8요인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검증용 합치도(χ^2)와 판단적 합치도(RMSEA, CFI, TLI, SRMR)를 참조하였다. 검증용 합치도는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을 때 적합하다고 보지만, 요인수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판단적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Jahng, 2015). 판단적 합치도의 기준은 Vandenberg와 Lance(2000)의 기준을 참고하여, RMSEA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 SRMR은 .10 이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Vandenberg & Lance, 2000: Lee, Youn, Lee, & Jung, 2016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2요인 모형은 판단적 합치도가 적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검증용·판단적 합치도가 적합한 3–5요인 모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요인부하량을 검토하였다. Table 2에는 3요인과 4요인의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 문항이 교차 부하되었을 때는 요인 부하량이 큰 쪽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요인에는 교차부하된 문항이 5문항이었고, 4요인은 4문항이었으며, 3요인은 2문항이었다. 먼저, 5요인 모형에서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검토했을 때, 5요인에는 선택된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5요인 모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요인은 3요인 모형과 유사하

Table 1. *Model Fit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reliminary Items of DSES*

Model	χ^2	*df*	$\Delta\chi^2$	Δdf	RMSEA	CFI	TLI	SRMR
2	477.69***	229			.07	.89	.86	.05
3	368.79***	207	108.90***	22	.06	.93	.90	.04
4	278.76***	186	90.03***	21	.05	.96	.94	.03
5	216.75**	166	62.01***	20	.04	.98	.96	.03
6	N/A							

**$p < .01$. ***$p < .001$.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9

Table 2. *Factor Loadings of Factor3 and Factor 4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reliminary Items of DSES*

Item	Factor 3			Factor 4			
	1	2	3	1	2	3	4
1	.57*	-.33*	.04	.61*	.03	-.31*	.02
2	.58*	-.04	.02	.55*	-.08	.01	.08
3	.56*	-.35*	.01	.60*	.01	-.33*	-.02
4	.69*	.00	-.04	.71*	.07	-.02	-.02
5	.69*	-.01	-.10	.71*	.05	-.03	-.06
6	.66*	.01	-.13	.63*	-.13	.07	-.02
7	.75*	-.04	.01	.72*	-.07	.00	.09
8	.68*	.05	-.05	.66*	-.04	.07	.04
9	.06	.48*	.14	.10	.40*	.29*	.07
10	-.05	.61*	.08	-.08	.22	.47*	.10
11	-.18*	.34*	.24	-.04	.79*	-.00	-.03
12	-.25*	.40*	.22	-.17*	.60*	.12	.03
13	-.04	.52*	.09	-.00	.41*	.30*	.02
14	-.19*	.40*	.21	-.19*	.23	.27*	.17
15	.11	.80*	.02	.09	.27	.62*	.07
16	.01	.77*	-.23	-.03	.09	.69*	-.13
17	-.01	.14	.66*	-.25	.26*	.04	.58*
18	.10	.02	.62*	.04	-.02	.06	.63*
19	.10	-.12	.67*	.09	.13	-.14	.59*
20	-.02	-.25	.90*	-.04	.10	-.23	.79*
21	.09	.10	.62*	-.05	-.22*	.20	.75*
22	.08	-.09	.65*	.04	.02	-.07	.62*
23	.21*	.02	.57*	.15*	-.03	.07	.59*
24	.18*	.14	.59*	.11	.03	.14	.61*

*$p < .05$.

였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3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1요인에 8문항, 2요인에는 8문항, 3요인에 8문항으로 총 24문항이 예비척도에 포함되었다. 1요인과 2요인, 1요인과 3요인의 요인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 = -.15$, *ns*; $r = .12$, *ns*, 2요인과 3요인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 = .69$, $p < .05$.

각 요인들의 문항 내용을 고려하여 1요인은 '긍정왜곡 자기평가', 2요인은 '부정왜곡 자기평가', 그리고 3요인은 '타인비교 자기평가'로 명명하였다.

신뢰도

1요인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86이었고, 2요인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84이며, 3요인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다.

연구 2

방법

연구 2에서는 척도의 문항 선별과 요인구조 확인을 위해 만 20–64세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다.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64세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예비조사 설문 총 215부를 배포하였고, 205부를 회수(회수율 95.3%)했다. 남성은 104명(50.7%), 여성은 101명(49.3%)이었으며, 만 20–29세는 45명(22.0%), 만 30–39세는 45명(22.0%), 만 40–49세는 44명(21.5%), 만 50–59세는 45명(22.0%), 만 60–64세는 26명(12.7%)이었다.

도구

역기능적 자기평가(DSES) 2차 예비 문항

연구 1에서 선정된 2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항반응양식은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2점 '별로 아니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5점 '항상 그렇다')이다.

자기고양 편파 척도

연구 1에서 사용한 동일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예비문항의 문항분석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 분석 결과 .86으로 적절하였다.

자기–비판적 인지척도(SCCS)

연구 1에서 사용한 동일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예비문항의 문항분석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 분석 결과 .78로 적절하였다.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INCOM)

연구 1에서 사용한 동일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예비문항의 문항분석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 분석 결과 .72로 적절하였다.

자료분석

연구 2에서 최종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 분석을 하였다. 첫째, 문항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문항-상관, 문항-관

www.kci.go.kr

련척도 상관, 그리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가 검토되었다. 분석은 SPSS 21.0이 사용되었다. 둘째, 표본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KMO의 표준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셋째, 최종 문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각회전(Oblique)방식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문항 정보곡선을 확인하였다. 이는 Mplus 7.4를 사용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SPSS 21.0이 사용되었다.

결 과

문항분석

부적절한 문항을 확인하여 삭제하기 위해서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 간 상관, 문항-전체척도 상관, 문항-관련척도 상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판단 기준은 연구 1과 같게 하였다. 문항 평균, 표준편차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문항 신뢰도, 준거 척도와 상관의 모두 적절하였다.

최종문항 선정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KMO지수는 0.90, Bartlett 검정 결과 1,745.1, $p < .001$으로 적합하였기 때문에 요인분석하기 위한 표본의 자료가 적절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검증용 합치도는 유의하였고, 판단적 합치도는 RMSEA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 SRMR은 .10 이하로 3요인의 모형적합도는 적절하였다, $\chi^2 = 296.91$, $df = 207$, RMSEA = .05, CFI = .95, TLI = .93, SRMR = .04, $p < .001$. 최종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서 문항정보곡선과 요인부하량을 참고하여 2, 3, 6, 11, 13, 16, 18, 19, 22문항이 삭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요인에 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최소 .53, $p < .05$에서 최대 .76, $p < .05$로 적절하였다. 2요인에는 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최소 .51, $p < .05$에서 최대 .82, $p < .05$로 적절하였다. 마지막으로, 3요인에도 5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최소 .48, $p < .05$에서 최대 .74, $p < .05$으로 적절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별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선택하였다.

요인 간 상관은 1요인과 2요인 간 -.52, $p < .05$, 1요인과 3요인 간 .01, *ns*, 2요인과 3요인 간 .42, $p < .05$이었다.

신뢰도

1요인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84이었고, 2요인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81이며, 3요인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77이었다.

Table 3. *Factor Loading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Items in Dysfunctional Self-Evaluation Scale*

Item	Factor 3		
	1	2	3
1	.53*	-.24*	-.03
2	.45*	-.15	.03
3	.48*	-.26	-.01
4	.70*	.01	-.23*
5	.76*	.00	-.10
6	.58*	-.01	-.05
7	.57*	-.25*	.08
8	.61*	-.08	-.02
9	.01	.62*	-.01
10	-.02	.71*	-.00
11	.01	.51*	.04
12	-.22*	.60*	-.15
13	-.17	.58*	-.10
14	-.16	.51*	.20*
15	.17	.82*	.03
16	.00	.64*	.00
17	-.07	.21	.54*
18	-.05	.04	.49*
19	.28*	.43*	.26*
20	-.07	.10	.59*
21	.05	.21	.48*
22	.02	.09	.45*
23	.08	-.05	.68*
24	-.01	-.01	.74*

*$p < .05$.

연구 3

방법

연구 2에서 최종 선정한 15문항을 바탕으로 만 20–64세의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다. 서울 및 경기에 거주하는 만 20–64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본조사 설문지 총 215부를 배포, 207부를 회수(회수율 96.3%)했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을 제외, 총 20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성 101명(49.3%), 여성 104명(50.7) 였으며, 만 20–29세는 45명(22.0%), 만 30–39세 45명(22.0%),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9

만 40–49세 44명(21.5%), 만 50–59세 46명(22.4%), 만 60–64세 25명(12.2%)이었다.

도구

역기능적 자기평가(DSES) 2차 예비 문항

연구 2에서 최종 선정한 15문항으로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2점 '별로 아니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5점 '항상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자기고양 편파 척도

연구 1에서 사용한 동일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수렴타당도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양호하였다, .86.

자기-비판적 인지척도(SCCS)

연구 1에서 사용한 동일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수렴타당도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78.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INCOM)

연구 1에서 사용한 동일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수렴타당도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양호한 수준이었다, .72.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

BSI-18은 Derogatis(2001)의 SCL-90-R의 단축형인 단축형 간이정신진단검사(BSI-18)를 Park, Woo와 Chang(2012)이 한국판 척도로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신체화, 우울, 불안), 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에 해당하는 12문항을 준거타당도를 위해 연구에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없다', 2점 '약간 있다', 3점 '보통이다', 4점 '꽤 그렇다', 5점 '매우 심하다')로 이루어져 있다. 타당화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전체 .89, 신체화 .73, 우울 .80, 그리고 불안 .81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우울 .84, 불안 .87, 전체 .91로 적절하였다.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 준거를 바탕으로 개발한 척도이며 이는 외현적 자기애를 측정한다. Raskin과 Terry(1988)가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Han(1999)이 번안하였고, 이를 다시 Chung(2001)이 32문항으로 단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준거타당도를 위해서 Chung(2001)의 연구에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각 요인별 요인부하량이 높은 3문항씩을 선택하여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리더십/자신감, 권위주의/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검자 반응의 편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항을 무선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양식을 통일하였고, 5점 척도('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Chung(2001)의 연구에서 단축된 검사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5였다.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Scale, CNS)

Gang과 Chung(2002)이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내현적 및 외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인정욕구/ 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와 내현적 자기애의고유요인 3개(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로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준거타당도를 위해서 Gang과 Chung(2002)의 연구에서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각 요인별 요인부하량이 높은 3문항씩을 선택하여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수검자 반응의 편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항을 무선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양식을 통일하였고, 5점 척도('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약간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Gang과 Chung(2002)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72이었다.

자료분석

최종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 선별과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따랐다. 첫째, 문항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 척도 상관, 문항-관련척도 상관, 문항 신뢰도(Cronbach's α) 검토를 위해 SPSS 21.0이 사용되었다. 둘째,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KMO의 표준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지표를 검토하였다. 이는 Factor 10.3이 사용되었다. 요인구조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Mplus 7.4가 사용되었다. 또한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SPSS 21.0이 사용되었다. 넷째,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위해서 관련 척도들과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의 상관 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SPSS 21.0이 사용되었다.

www.kci.go.kr

Table 4. *Factor Loading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Items in Dysfunctional Self-Evaluation Scale*

Item	Unstandardized Factor Loadings	*SE*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Posi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1	1.00	.05	.67
4	.73	.06	.51
5	.77	.06	.51
7	.92	.05	.73
8	.62	.06	.56
Nega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9	1.00	.08	.20
10	3.67	.06	.61
12	2.73	.06	.53
14	2.72	.07	.47
15	4.67	.05	.77
Social comparison self-evaluation			
17	1.00	.06	.59
20	.94	.06	.56
21	1.29	.05	.67
23	1.13	.06	.58
24	1.31	.05	.74

Note. Refer to appendix for item contents of DSES.
All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are significant at $p < .01$.

결 과

DSES의 확인적 요인분석

KMO지수는 0.80, Bartlett 검정 결과 694.6, $p < .001$으로 적합하였기 때문에 요인분석하기 위한 표본의 자료가 적절하였다. 이후 최종모형을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고, 모형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chi^2 = 113.036$, $df = 87$, RMSEA = .04, CFI = .96, TLI = .95, SRMR = .05, $p < .05$. 검증용 합치도는 유의하였고, 판단적 합치도는 RMSEA는 .08 이하, CFI와 TLI는 .90 이상, SRMR은 .10 이하로 적절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모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적절한 범위의 값을 보이고 있다. 요인 간 상관은 1요인과 2요인 간 -.62, $p < .05$, 1요인과 3요인 간 -.19, $p < .05$ 이었고, 2요인과 3요인 간 .58, $p < .05$로 나타났다.

신뢰도

1요인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73이었고, 2요인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64이며, 3요인의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 α)는 .76이었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DSES and Other Variables*

	Overt narcissists	Covert narcissists	Depression	Anxiety
Posi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71**	-.06	-.32**	-.21**
Nega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25**	.51**	.45**	.45**
Social comparison self-evaluation	.11	.40**	.16*	.27**

*$p < .05$. **$p < .01$.

수렴타당도 검증

수렴타당도 결과, 긍정왜곡 자기평가와 자기고양 편파 척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76$, $p < .01$. 부정왜곡 자기평가와 자기-비판적 인지 척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75$, $p < .01$. 타인비교 자기평가와 사회비교 경향성 척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71$ $p < .01$.

준거타당도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의 하위요인과 관련성이 예상되는 우울, 불안,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긍정왜곡 자기평가와 외현적 자기애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우울과 불안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왜곡 자기평가는 내현적 자기애, 우울,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현적 자기애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타인비교 자기평가는 내현적 자기애, 우울,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 및 각 하위요인과 준거변인의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역기능적 자기평가의 각 하위요인이 포함되었고, 종속변인으로는 우울, 불안,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긍정왜곡 자기평가는 외현적 자기애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부정왜곡 자기평가는 내현적 자기애, 우울,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타인비교 자기평가는 내현적 자기애, 우울,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논 의

개인의 자기평가의 방식으로 인해 왜곡된 자기개념을 형성한다면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며 편향된 수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역기능적 자기평가'라 정의하였고, 연구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9

Table 6. *Result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on DSES Affecting Variables*

	β	t	R^2	F
Posi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Overt narcissists	.71	14.03***	.50	196.95***
Nega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Covert narcissist	.51	8.20***	.26	66.69***
Depression	.45	7.18***	.21	51.54***
Anxiety	.45	7.08***	.20	50.17***
Social comparison self-evaluation				
Covert narcissists	.40	6.09***	.16	37.11***
Depression	.16	2.24*	.02	5.00*
Anxiety	.27	3.96***	.07	15.65***

Note. In this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posi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negative distortion self-evaluation, social comparison self-evaluatio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overt narcissists, covert narcissists, depression, anxiety.
*$p < .05$. ***$p < .001$.

1, 2, 3을 통해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는 본 연구에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1요인은 긍정왜곡 자기평가, 2요인은 부정왜곡 자기평가, 그리고 3요인은 타인비교 자기평가로 각 요인당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연구자가 가설적으로 설정한 구성개념과 일치하였다. 긍정왜곡 자기평가는 긍정적인 정보에 집중하여 자신을 실제보다 고양되게 자기평가하는 것으로, 그 수준이 편향되고 과도하며 비현실적이다. 부정왜곡 자기평가는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편향적이고 과도하게 부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타인비교 자기평가는 과도하고 편향되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다.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긍정왜곡 자기평가와 부정왜곡 자기평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긍정왜곡 자기평가는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는 것이고, 부정왜곡 자기평가는 과도하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개념이 대비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점으로 인해, 본 척도를 활용할 때에는 총점보다는 각 하위요인의 개별적인 점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의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전체 척도 및 세 하위요인들과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애, 우울 그리고 불안과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긍정왜곡 자기평가와 외현적 자기애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고양시키는 특성과 자기애 성향이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Robins & Beer, 2001). 외현적 자기애는 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과 관련된 긍정적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이 있으며(Sedikides & Gregg, 2001), 과장된 자존감을 보이며(Lee & Jung, 2012), 이로 인해 왜곡된 자기개념을 형성한다(Cooper, 2000).

반면, 긍정왜곡 자기평가는 우울,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고양적으로 편향되게 지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정보를 내부 귀인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지각한다(Rho & Lee, 2005). Han(2003)의 연구에서도 자신을 고양시키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긍정왜곡 자기평가를 주로 사용하는 외현적 자기애는 과장된 자기지각을 보이는 특성으로 인해 우울한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Gang & Chung, 2002). 하지만 Lee와 Jang(2011)의 종단 연구는 자신을 고양시키려는 동기가 높은 집단이 1년 후에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긍정왜곡 자기평가가 장기적으로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부정왜곡 자기평가와 내현적 자기애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자기개념을 갖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취약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판의 단서에 예민하며,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는 Park, Shin과 Lee(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정왜곡 자기평가가 증가할수록 우울이 높아졌고, 이러한 자기평가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스스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Cho와 Hyun(2011), Lee, Cho, Kwon과 Lee(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정왜곡 자기평가는 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Lee 등(2014)의 연구도 자신을 비판하는 것과 불안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평소 부정왜곡 자기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불안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타인비교 자기평가는 내현적 자기애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여 자기평가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인을 평가절하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Kernis & Sun, 1994).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와 타인비교 자기평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외향적 자기애 및 내향적 자기애에서 각각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왜곡 자기평가와 타인비교 자기평가를, 외현적 자기애는 긍정왜곡 자기평가와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자기애

www.kci.go.kr

의 유형에 따라 자기평가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자기애를 연구할 때, 역기능적 자기평가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타인비교 자기평가는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utzer와 Kuiper(2006)의 연구에서도 사회비교를 많이 하는 것과 우울은 관계가 있었다. 또한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사회비교를 많이 하였다(Swallow & Kuiper, 1992).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에게 타인과의 비교는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게끔 하였고, 이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불안 또한 타인비교 자기평가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높은 불안과 관계가 있다는 Gibbons과 Buunk (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기능적 자기평가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성을 반영하는 통합된 자기평가 척도가 부재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척도를 통해 역기능적 자기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후속 연구를 위한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둘째, 심리적 부적응과 역기능적 자기평가와의 기초적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역기능적 자기평가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척도를 기반으로 역기능적 자기평가에 대한 이해가 진전될 거라 기대된다.

셋째,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의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역기능적인 자기평가로 인해 자기개념이 왜곡되어 자신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과 경직된 사고, 정서적 불편함 등이 초래될 것이며, 삶을 살아가는 데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자기개념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수정된다 하더라도 자기평가가 편향되었다면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본 척도를 통해 치료나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어떤 역기능적인 자기평가를 주로 사용하며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역기능적인 방식을 확인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역기능적 자기평가와 우울, 불안,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애의 관련성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변인과의 관계가 예측되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역기능적 자기평가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정서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을 증가하게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Lee & Jang, 2011)는 이러한 역기능적 자기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수집된 표집의 한계성이다. 먼저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서울과 경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전국 단위의 표집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추후 표준화된 집단을 통해서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한다면, 척도를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성인을 대상이 아닌 정신병리군의 역기능적인 자기평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신병리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쌓이게 되면, 각각의 정신장애에 따라 어떤 역기능적 자기평가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현적 자기애는 긍정왜곡 자기평가와 관련이 있었고,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왜곡 자기평가 그리고 타인비교 자기평가와 관련이 있었다. 이후 각각의 정신장애에 따라 어떤 역기능적 자기평가의 방식이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된다면, 환자의 자기평가 특성을 파악하고, 정신장애를 이해하여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uthor.

Bosma, H. A., & Kunnen, E. S. (2005). *Identity and emotion: Development through self-organizat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rwell, R. A., & Shirk, S. R. (2006). Self processes in adolescent depression: The role of self-worth contingenc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 479-490.

Butzer, B., & Kuiper, N. A. (2006). Relationships between the frequency of sial comparisons and self-concept clarity,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67-176.

Cai, H., Brown, J. D., Deng, C., & Oakes, M. A. (2007). Self-esteem and culture: Differences in cognitive self-evaluations or affective self-regard?.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162-170.

Campbell, J. D., Assanand, S., & Paula, A. D.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 115-140.

Cho, H. J., & Hyun, M. H. (2011). The effects of perceived stress and self 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riticism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 49-62.

Choi, Y. H. (2003). *The effects of stress, locus of control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level of depression* (Unpublished mas-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9

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yeonggi-do, Korea.

Chon, H. R. (2005).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tress coping strategy and achievement go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Chung, N. W. (2001).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3*, 221-237.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s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52-1162.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74). London, United Kingdom: Jason Aronson.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Derogatis, L. R. (2001). *Brief Symptom Inventory (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MN: NCS Pearson.

Diehl, M., Owen, S., & Youngblade, L. (2004). Agency and communion attributes in adults' spontaneous self-represen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 1-15.

Driscoll, R. (1989). Self-condemnation: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6*, 104-111.

Epstein, S. (1992). Coping ability, negative self-evaluation, and overgeneralization: Experiment and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26-836.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Fujita, F. (2008). The frequency of social comparison and its relation to subjective well-being. In M. Eid, & R. J. Larsen (Ed.),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p. 239-257). New York, NY: Guilford Press.

Gang, S. H., & Chung, N. W.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 969-990.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Go, J. H., & Jeon, B. U. (2003). Two kinds of self-evaluation biases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lty Psychology, 17*, 1-16.

Ham, S. M., & Hyun, M. H.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blame moderated by ruminative response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3*, 225-235.

Han, S. J. (1999). *Overt and covert self-relevant cognition of narcissis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Han, S. Y. (2003). Cross-cultur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nhancement bia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9*, 79-99.

Ishiyama, F. I., & Munson, P. A. (199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critical cogni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72*, 147-154.

Jahng, S. M. (201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ikert-type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1079-1100.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p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ial Pychology, 66*, 206-219.

Kernis, M. H., & Sun, C. R. (1994). Narcissism and reactions to interpersonal feedbac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4-13.

Kim, J. M. (2009).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riticism and shame in the relation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maladaptive emot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 205-225.

Kim, J. N., Lee, S. M., Choi, S.W., Chea, J. M., Seo, D. G., Choi, Y. K., & Cho, C. H. (2017). Development and analysis of a dysfunctional depression scale based on Korean culture. *The Kork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2*, 849-882.

Leary, M. R., & Tangney, J. P. (2011).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NY: Guilford Press.

Lee, H. M. (2009). *The influence of depression on shame-inducing experience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ritical cognition and avoidance/withdrawal copping strategy*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yeonggi-do, Korea.

Lee, J. W., & Jang, E. Y. (2011). Longitudinal effects of self-enhancement motive, implicit and explicit narcissism on depressive moo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441-458.

Lee, M. J., & Jung, J. B. (2012). The analysis of interpersonal behavior pattern for undergraduate with cover and 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A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3*, 119-146.

Lee, S. M., Youn, C. Y., Lee, M. H., & Jung, S. H. (201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How has it Changed?.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 217-255.

Lee, S. Y., Cho, H. J., Kwon, J. H., & Lee, J. S. (2014). The effect of defeat on anxiety/depression: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self-cognition and entrapment.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4*, 285-303.

Park, K. P., Woo, S. W., & Chang, M. S. (2012). Validational study of 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507-521.

www.kci.go.kr

Park, S. R., Shin, M. S., & Lee, H. J. (2005). Self-evaluations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overt, covert narcissis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55-266.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i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Rho, Y. J., & Lee, J. Y. (2005). The relation of positive illusions and attributional sty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4*, 245-266.

Robins, R. W., & Beer, J. S. (2001). Positive illusions about the self: Short-term benefits and long-term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4-352.

Santor, D. A., & Yazbek, A. A. (2006). Soliciting unfavourable social comparison: Effects of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545-556.

Sedikides, C., & Gregg, A. P. (2001). Narcissists and feedback: Motivational surfeits and motivational deficits. *Psychological Inquiry, 12*, 237-239.

Shirk, S., Burwell, R., & Harter, S. (2003). Strategies to modify low self-esteem in adolescents. In M. Reinecke, F. Datilio, & A. Freeman (Ed.), *Cognitive 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A casebook for clinical practice* (2nd ed., 189-213). New York, NY: Guilford Press.

Stapel, D. A., & Blanton, H. (2004). From seeing to being: Subliminal social comparisons affect implicit and explicit self-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68-481.

Stopa, L. (2009). Why is the self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d treating social phobia?.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8*, 48-54.

Swallow, S. R., & Kuiper, N. A. (1992). Mild depression and frequency of social comparison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1*, 167-180.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Taylor, S. E., & Gollwitzer, P. M. (1995). Effects of mindset on positive illu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213-226.

Vallacher, R. R., Nowak, A., Froehlich, M., & Rockloff, M. (2002). The dynamics of self-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 370-379.

국문초록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새봄·김종남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는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the Dysfunctional Self-Evaluation Scale, DSES)를 개발 및 타당하였다. 역기능적 자기평가는 왜곡된 자기개념과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1에서 만 20–64세의 성인 23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DSE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 만 20–64세의 성인 20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총 각 하위요인별 5문항씩 총 15문항이 확정되었다. DSES는 긍정왜곡 자기평가, 부정왜곡 자기평가, 그리고 타인비교 자기평가의 3요인 구조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 만 20–64세의 성인 20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3요인 구조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절한 내적일관성을 보였다. 준거타당도 결과, 긍정왜곡 자기평가는 외현적 자기애와, 반면 부정왜곡 자기평가는 내현적 자기애, 우울, 불안과 관련이 있었다. 타인비교 자기평가는 내현적 자기애, 우울, 불안과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 척도 개발, 척도 타당화, 요인 분석

www.kci.go.kr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9

Appendix. 역기능적 자기평가 척도*(the Dysfunctional Self-Evaluation Scale, DSES)*

다음 문항은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특성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 해당 되는 칸에 ✔표 해주세요.

no	문 항	전혀 아니다 (1)	별로 아니다 (2)	약간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항상 그렇다 (5)
1	나는 나의 모든 면(성격, 외모, 능력 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	나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언제나 잘 풀릴 거라 생각한다.					
3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4	나는 나에 대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다.					
5	나는 모두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할 만큼 잘나가는 사람이다.					
6	나의 단점이나 실수, 한계를 발견하면 그것들이 나를 설명하는 전부인 것 같다.					
7	특별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8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꾸만 내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9	실패나 실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무능 때문이다.					
1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쉽게 비판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11	나는 나의 결과를 타인의 결과와 비교해야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안다.					
12	나는 남들과 비교를 토대로 내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를 판단한다.					
13	나는 나와 타인의 상황을 비교해보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평가한다.					
14	내가 얼마나 사회성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 타인과 비교하곤 한다.					
15	나는 종종 내가 인생에서 달성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달성한 것을 비교한다.					

www.kci.go.kr